

역사를 품고 안보를 다짐한 3박 4일

군사학과 2학년 조은준

일시 : 2026년 9월 17일 ~ 9월 20일(3박 4일)

장소 : 중국 대련·여순(여순감옥·관동법원 구지), 백두산 북파, 단동(압록강 유람선·단교)

장차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 장교로 임관할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군사학과 학장님과 교수진, 그리고 2학년 동기들과 함께 3박 4일간 중국 전적지 및 안보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탐방은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역사와 안보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장차 안보를 책임질 예비 장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현장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비극적인 현장부터 민족의 영산, 그리고 한반도 안보의 최전선을 차례로 마주하며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조국의 의미를 몸소 체감했습니다.

탐방 첫날인 9월 17일에는 대련에 도착한 뒤 여순으로 이동해 여순감옥과 관동법원 구지를 견학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선열께서 고통을 겪고 순국하신 현장에 서자 말로 다할 수 없는 숙연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하얼빈 의거 이후 여순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헌신을 되새기며, 장차 지휘관이 될 제가 갖추어야 할 군인의 본분과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벽돌과 사형장에 남은 흔적은 선열들의 꺾이지 않는 독립 의지를 생생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관동법원 구지를 둘러보며 국가가 힘을 잃고 주권을 상실했을 때 국민이 겪는 비극을 직시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힘과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선열들의 희생 앞에서 장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진로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향한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둘째 날인 9월 18일에는 백두산 북파에 올라 천문봉에서 천지를 조망하고 장백폭포와 온천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백두산의 웅장한 기상과 천지의 장엄한 모습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기개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육체적 한계를 극복했던 경험은 앞으로 혹독한 훈련과 어려운 임무를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임무를 완수하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 스스로가 강인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인 9월 19일에는 단동으로 이동해 압록강 유람선에서 북한의 모습을 바라보고, 압록강 단교와 압록강공원을 탐방했습니다. 지척에 두고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단교는 안보 태세가 약해질 때 역사의 비극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북방 안보의 현장에서 냉엄한 국제정세와 분단국가의 현실을 마주한 경험은 흔들림 없는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대련을 떠나 조선대학교로 돌아오며 모든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탐방에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은 역사적 현장에서 얻은 교훈을 장교로서의 삶과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책상 위에서 익힌 지식은 현장과 만났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직업의 명예와 책임을 다시금 확인했고, 장차 국군 장교로 임관하겠다는 포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총장님과 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교육적 지원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임관하는 그날까지 학업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정예 장교로 성장하겠습니다. 나아가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책임 있는 군인이 되어 학교의 명예를 빛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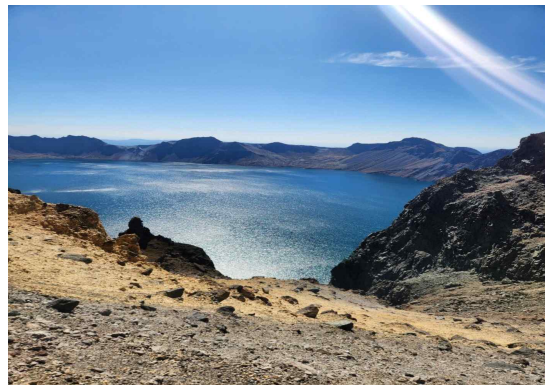
여순감옥



압록강 단교



관동법원



백두산 천지